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취업 현황

- 아베노믹스로 경기가 회복되어 가고 있는 일본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
- 청년 실업이 과제인 우리나라로서는 일본기업 취업으로 학생들의 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기회로 볼 수 있음

□ 일본정부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책

- 경제 사회의 활성화 관점에서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외국인의 취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 고급 외국 인력 유치 및 정착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며, 취업 환경, 생활면 등의 환경 정비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대처
 - 외국인 노동자의 수용 범위의 확대는 노동 시장과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국민적 논의 필요
- 일본정부는 경제·사회 기반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 이민정책과 오해 없는 중장기적인 외국 인력 수용의 본연의 자세에 대해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
 - 아베노믹스에서는 1단계의 성장전략인 「일본재흥전략」의 주요 항목으로서 외국 인재 활용이 포함되어 있었음
 - 고급 외국 인력 유치 촉진을 위한 노력 강화
 - 유학생 유치 가속화와 유학 후의 활약 지원 강화
 - IT·관광 등의 「전문적·기술적 분야」에 대한 외국 인재의 활약 촉진
 - 경제 협력 협정에 근거한 간병 복지사 후보자의 활약 촉진
 - * 아베노믹스는 3가지 화살을 중심으로 디플레이션 탈출을 목표로 한 1단계(2013년 하반기 ~2015년 상반기), 미래투자에 의한 생산성 혁명을 실현시키는 2단계(2015년 하반기 ~2017년 상반기), Society5.0의 실현을 위한 개혁을 추진하는 3단계(2017년 하반기~)로 내용이 진화되어 왔음
- 일본의 외국인 유학생 취업 촉진 대책으로서는 「외국인 고용 서비스 센터」, 「헬로우 워크」 등의 전국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의식 계발에서 매칭·정착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다양한 지원 메뉴를 제공하며, 졸업자 응원 헬로우 워크에 유학생 코너를 설치하는 등 유학생의 취업 지원을 강화

□ 일본 내 외국인 노동자 및 유학생의 취업 현황

- 법무성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으로 일본 내 중장기 재류 외국인 수는 2,043,872명, 특별영주자 수는 338,950명으로 재류 외국인 총수는 2,382,822명으로 '15년말 대비 150,633명(6.7%) 증가하여 과거 이래 최고를 기록
- 2016년 10월말 기준으로 일본 내 취업활동중인 외국인 노동자수는 약 108만 명이며 재류 자격별로 보면 영주자, 교포, 배우자 등의 신분으로 재류하는 외국인이 가장 많고, 이어 유학생 등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자격 외 활동」 임

< 국적 및 재류자격별 일본 내 취업활동자 수('16.10월말) >

국가	전문, 기술직	특정 활동	기능실습	자격 외 활동	영주권자 등	기타	계
중국	84,229	3,469	84,373	85,275	87,306	6	344,658
한국	20,937	2,296	146	7,150	17,590	2	48,121
필리핀	6,371	1,592	20,846	1,114	97,591	4	127,518
베트남	12,437	1,436	72,740	46,135	9,267	3	172,018
네 팔	4,677	2,545	321	42,702	2,616	0	52,770
브라질	565	16	53	174	105,789	0	106,597
페루	95	8	42	60	25,867	0	26,072
G7/8+호주 +뉴질랜드	39,446	1,426	33	1,862	24,557	31	67,355
기타	32,237	5,955	32,554	25,105	42,806	3	138,660
계	200,994	18,652	211,108	239,877	413,389	49	1,083,769

- 일본학생지원기구가 '16.1월에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본 내 유학생 중 졸업 후 「일본에서 취업 희망자」는 63.6%, 「계속 진학 희망자」는 50.4%, 「출신국에서 취업 희망자」는 20.0%로 나타남
- 일본 법무성 자료에 따르면 2015년에 유학 비자로 체류했던 외국인 유학생이 일본기업 등 취업을 이유로 비자 변경을 신청한 사람은 17,088명이며 이 중 15,657명이 허가를 받았음

< 국적별 2015년 취업 비자 변경 허가 인원수 내역 >

국적	중국	한국	베트남	대만	네 팔
인원수	9,847명	1,288	1,153	649	503
(비중)	(62.9%)	(8.2)	(7.4)	(4.1)	(3.2)

- 한국인 유학생이 취업 비자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은 인원의 절대적인 수는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외국인 유학생 전체에서의 비준은 감소 추세

< 한국인 유학생의 취업 비자 변경 허가 인원수 추이 >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인원수	1,205명	1,209	1,417	1,227	1,234	1,288
(비중)	(15.4%)	(14.1)	(12.9)	(10.5)	(9.5)	(8.2)

- 업종별로 보면 외국인 유학생을 가장 많이 채용하고 있는 업종은 상업·무역 분야이며 2015년의 비준은 21.1%
 - 이 통계를 봤을 때 외국인 유학생의 언어 능력을 활용하여 글로벌 전개를 추진하고자 하는 상사 및 무역 관련 기업에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이라고 예상이 됨

< 업종별 외국인 유학생 취업 허가 인원수의 추이 >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전기	297	375	470	433	511	533
기계	215	301	449	409	387	460
식품	291	298	359	357	367	347
운송기기(자동차 등)	100	135	210	232	239	303
화학	100	157	170	208	167	159
섬유·의류	130	116	151	122	142	149
금속·철강	31	38	42	28	43	49
기타 제조업	574	693	853	845	863	1,077
제조업 소계	1,738	2,113	2,704	2,634	2,719	3,077
상업·무역	2,091	2,288	2,728	2,726	2,926	3,311
컴퓨터 관련	651	757	903	1,059	1,288	1,586
교육	802	703	933	1,032	1,181	1,176
외식업	324	454	622	564	427	506
토목·건설	173	170	210	292	366	395
호텔·여관	178	200	211	240	321	459
여행업	201	188	223	215	289	399
운수	154	171	197	229	219	286
금융보험	107	129	139	231	218	196
의료	83	71	63	132	143	280
기타	1,329	1,342	2,036	2,293	2,861	3,986
비제조업 소계	6,093	6,473	8,265	9,013	10,239	12,580
합계	7,831	8,586	10,969	11,647	12,958	15,657

- 그러나 직무 내용별로 봤을 때 번역·통역 업무가 가장 많긴 하지만 최근 동향으로 주목해야 하는 분야는 경영·관리업무를 맡는 인원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

- 이 통계로 최근에는 외국인이라고 해도 단순한 사업 수준이 아닌 일본인 부하를 지도할 수 있는 리더십력, 회사의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의 제안이나 기획이 가능한 인재가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는 일본에서 근무 후 나중에 해외 법인기업의 경영자로서 보내기 위한 육성을 계획한 것으로 예상

< 직무 내용별 외국인 유학생 취업 허가 인원수의 추이 >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번역·통역	3,247	2,543	2,928	2,773	3,190	3,747
판매·영업	704	1,968	2,529	2,743	3,122	3,809
기수개발 (정보처리 분야)	605	591	807	949	1,038	1,218
기술개발 (정보처리 분야 외)	332	396	508	543	615	750
교육	264	573	789	854	950	943
설계	223	294	452	474	602	773
경영·관리업무	275	389	453	489	568	1,180
해외업무	331	462	539	604	515	536
무역업무	242	212	267	317	309	267
회계업무	112	151	227	260	240	259
기타	1,496	1,007	1,470	1,641	1,809	2,175
합계	7,831	8,586	10,969	11,647	12,958	15,657

□ 일본기업의 외국인 고용 동향

- JETRO·내각부·후생노동성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2016년 3월말 통계)에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일본기업은 44.4%, 2015년도 이후 향후 외국인 고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업은 20.0%

< 일본기업의 외국인 고용 현황('15년도) >

	고용 중	향후 검토	현재 미고용, 앞으로도 고용 계획 없음	기타
전체	44.4%	20.0%	29.6%	6.0%
대기업	72.7%	10.3%	13.0%	1.0%
중소기업	36.7%	22.6%	34.1%	6.6%

- 기업의 외국인 인재 채용 동향으로서는 2016년에 2,000만 명 돌파가 예상되는 인바운드 비즈니스(관광·숙박·소매업 등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의 채용 확대가 전망되고 있음

- 방일 외국인 중 한국인 관광객이 2016년에는 500만 명을 돌파한 것을 감안하면 이 분야에서 한국인 고용에 대한 일본기업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임
- 단, 한국계 중국인(소위 조선족)과 같이 한국어도 중국어도 가능한 인재와의 경쟁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취업 면접 시에는 언어뿐만 아닌 「한국인으로^서 한국문화를 잘 알고 있는」 등 장점을 잘 강조할 필요

< 일본방문 외국인수 및 비중 추이 >

	'05	'07	'10	'13	'16
총	6,727,926	8,346,969	8,611,175	10,363,904	24,039,053
1	한국	한국	한국	한국	중국
	1,747,171명	2,600,694	2,439,816	2,456,165	6,372,948
	(비준 26.0%)	(31.1)	(28.3)	(23.7)	(26.5)
2	대만	대만	중국	대만	한국
	1,274,612	1,385,255	1,412,875	2,210,821	5,090,302
	(19.0)	(16.6)	(16.4)	(21.3)	(21.2)
3	미국	중국	대만	중국	대만
	822,033	942,439	1,268,278	1,314,437	4,167,504
	(12.2)	(11.3)	(14.7)	(12.7)	(17.3)
4	중국	미국	미국	미국	홍콩
	652,820	815,882	727,234	799,280	1,839,189
	(9.7)	(9.8)	(8.4)	(7.7)	(7.7)
5	홍콩	홍콩	홍콩	홍콩	미국
	298,810	432,042	508,691	745,881	1,242,702
	(4.4)	(5.2)	(5.9)	(7.2)	(5.2)

자료 : 일본정부관광국

- 인재 수요 시장은 일본 내수에서 외수로 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비제조업(서비스업) 등이 적극적으로 해외 전개를 추진할 전망
- 또한 제조업의 중소기업이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금까지의 일본국내 채용에서 해외에서의 현지 채용이나 본사 근무의 채용 활동도 확대할 것으로 보임
- 일본기업이 외국인 유학생의 「채용 효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은 크게 「대상국의 정보 수집·판로 확대」, 「해외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사내 활성화」의 3가지로 분류됨
- 예를 들어 일본기업이 한국인재를 채용할 경우, 그 사람을 통해 한국 시장에 대한 정보 수집이나 한국인이 좋아하는 상품에 대한 기획 등을 염두에 두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본기업 취업을 준비할 때는 각종 문서·엑셀 활용 능력을 키우거나 어떤 정보·통계가 어디에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알아볼 필요

< 일본기업이 원하는 외국인재 채용 효과 >

1. 대상국의 정보 수집·판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용한 외국인 유학생의 모국의 문화나 관습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음 독자적인 네트워크로 현지의 정보를 다각적인 시각에서 분석하거나 검토할 수 있음 	
2. 해외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높은 언어 능력이나 상습관의 이해로 인해 해외거래처나 현지 법인, 방일 외국인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 채용한 인재의 인맥이나 네트워크를 활용함으로써 해외에서의 비즈니스 전개를 유리하게 추진할 수 있음 	
3. 사내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배경·문화를 가진 인재를 사내에 둬으로써 조직의 활성화가 가능 일에 대한 자세나 태도로 동기 일본사원들에 대한 자극이나 관리직의 지도력 육성이 가능 상품 등의 다국적인 부가가치의 창출이 가능 	

< 외국인재 채용 기업의 성공 사례 >

업종	효과	해외 전개 사례
제조업	판로 확대	동남아 외국인 유학생을 채용. 우선 아르바이트로 고용하고 그 후 정식 채용. 일본인 기술사와 함께 제품정보를 웹사이트에 영어로 게재하고 홍보를 강화했는데 해외로부터 수주가 증가하는 등 구체적인 효과 창출.
제조업	판로 확대	중국인 사원들이 여러 명 있는데 일본의 경영을 이해한 다음에 중국식으로 수정함으로써 고객개척에 연결하는 등 중국인 사원의 활용을 통해 중국 비즈니스가 확대. 고객에게는 중국 현지기업이 많기 때문에 중국인 상원의 활용 효과는 큼. 향후는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지역의 인재를 획득하고 싶음.
서비스업	일본인 사원의 의식 변화	처음으로 중국인 사원을 채용. 적극적인 인재의 가입으로 일본인의 젊은 사원들이 자극을 받고 사내가 전체적으로 활성화. 또한 지금까지 설명이 필요 없는 일본의 상식을 문화가 다른 외국인 사원에게 교육함으로써 젊은 사원의 지도력이 성장.
소매업	제품 개발	중국으로부터의 관광객이 증가했기 때문에 중국인 사원을 고용.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상품 배치나 상품 설명지 등을 모국의 문화 지식을 활용하여 제안을 받으면서 실천했는데 매출이 확대.
주류 기업	집객 효과	해외 수출용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술의 개발을 위해 미국인 여성을 채용. 술을 만드는 기획 부문에서 외국인용의 새로운 스파크링 청주를 개발하고 히트를 쳤음.
웨딩 서비스	직백 효과	매년 외국인 유학생을 최소 1명 채용하는 계획을 세웠음. 동아시아로부터의 리조트 결혼 니즈에 대응하기 위해 오키나와의 대학에서 공부한 동아시아 유학생을 채용. 동아시아 제국과의 연락, 결혼식 스태프로서 활약 중.

○ 글로벌화로 인해 영어를 사내 공통언어로 지정하는 일본기업도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일본어 능력을 중시하는 기업이 많은 상황

- 일본어 능력을 증명하는 자격증으로는 ‘일본어능력시험’이 유명하지만 일본기업에서 요구되는 일본어 능력은 「BJT(비즈니스일본어능력테스트)」의 J1 또는 J1+ 수준으로 「폭 넓은 비즈니스 장면에서 일본어에 의한 적절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


- 즉 단순한 「일본어를 잘하는 인재」가 아닌 「비즈니스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재」가 요구되고 있음

< 일본기업이 외국인재 채용 시 중시하는 항목 >

	채용 시 중시하는 항목	비율	제조업	비제조업
1	어학력(일본어)	70.3%	64.8%	75.7%
2	커뮤니케이션 능력	60.4%	55.2%	65.4%
3	활동력(vitality)	37.7%	41.9%	33.6%
4	열의(지망 정도)	28.8%	28.6%	29.0%
5	전문성	24.5%	26.7%	22.4%
6	어학력(영어)	15.1%	19.0%	11.2%
7	발상력	14.2%	14.3%	14.0%
8	리더십	8.5%	9.5%	7.5%
9	출신 대학	4.2%	4.8%	3.7%
10	대학 성적	1.9%	1.9%	1.9%

□ 한일재단의 한국 청년인재 일본기업 취업매칭 사업

-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은 일본과의 한일협력사업을 통해 구축한 일본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의 청년인재를 채용코자 하는 일본기업을 발굴하여, 우리 청년인재와의 1:1 채용면접을 통한 일본기업 취업 매칭사업(채용상담회 개최)을 추진 중
- 한국 내 청년실업의 해소 및 일본과의 인적교류 확대를 위해 2015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여 2016년까지 채용상담회 5회를 개최하여 국내청년인재 93명이 일본기업에 취업
- 2017년은 아래와 같이 2번의 채용상담회를 개최할 예정
 - (1) 유관기관 협력 채용상담회
 - 일시/장소 : 2017년 9월 28일(목)/ 롯데호텔서울(소공동) 3F
 - 규모 : 한국 청년인재 채용희망 일본기업 30~35사 초청(1:1 취업면접)
 - (2) 인재매칭 전문회사(인텔리전스코리아) 협력 채용상담회
 - 일시/장소 : 2017년 9월 23일(토)/ 서울대학교
 - 규모 : 한국 청년인재 채용희망 일본기업 15사 초청(1:1 취업면접)
- 또한 한일재단의 쿤터파트너인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은 2015년부터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기업현장인재 육성형 인턴십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 중

- 인턴 프로그램에서는 한국 학생들이 서울에 있는 일본기업에서 30일간 인턴으로써 근무한 경험을 통해 일본기업의 비즈니스 기법을 습득하는 한편, 일본기업의 한국내 공헌활동에 대해서도 이해를 깊게 함으로써 향후 양국 관계 개선 도모도 기대
- 한일 양국 재단은 한국의 청년 실업 문제와 일본기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서로 Win-win하는 관계 구축을 바탕으로 두고 이러한 사업을 추진 중 

<참고자료>

- 후생노동성 「외국인 고용 신고 상황」(2016년 1월)
- 후생노동성 「고용 정책 기본 방침」(2016년 4월)
- 일본학생지원기구 「2015년도 사비 외국인유학생 생활실태 조사개요」(2016년 9월)
- 법무성 입국관리국 「2015 년의 유학생의 일본 기업 등에 취업 상황에 대해」(2016년 10월)
- JETRO·내각부·후생 노동성 「일본 기업의 외국 인력의 채용·활용의 과제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
(중소기업의 글로벌 전개에 있어서 외국인 유학생 등의 활용 세미나 (2016.4.26.))